

주름에 의한 패션 디자인
- 2000년대 이후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
Fashion Design with Folds
- Focusing on Women's Fashion after 2000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강사 김지영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 : Ji-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주름에 의한 패션 디자인 분석 |
| II. 주름의 조형요소 | V. 결론 |
| III. 주름의 유형 | 참고문헌 |

<Abstract>

Creative application in elaborate techniques can not only make design constructs productive but also can widen designers' figurative perspectives. There are many techniques applied in fashion design such as folds, patchworks, embroidery, dyeing, industrial treatment, etc. In particular, folds play a significant part in enlightening clothes uniquenes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new suggestion for the production of high value-added fashion goods by reviewing and synthesizing fold expressions. Diverse fold designs were retrieved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topic-related books, fashion dictionaries, and fashion encyclopedias. Significant cases of fashion designs using folds were retrieved from fashion magazines uploaded from 2000.

There are three types of folds applied in fashion design. (1) The folds by needlework like tucks, smocking, shirring, and trimming type folds(ruffle, frill, flounce, and ruche). (2) The folds by chemical or mechanical treatment like permanent pleats and crinkle. (3) The folds of formative dress like drape.

From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olds design cases after 2000,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folds design were identified: (1) a highlighted role in the whole, (2) mixture and deformation of techniques and

materials, (3) 3-D surface effect, (4) creation of a unique figurative beauty, and (5) expression of diverse fashion image.

주제어(Key Words): 주름(folds), 패션 디자인(fashion design), 표현기법(technique)

1. 서론

21세기는 여성중심, 생활중심, 감성중심의 시대로 고감도 산업으로서의 패션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된다. 패션은 '삶의 일부'로 우리들 생활 속에 깊이 차지하고 있으며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문화이며 산업이다. 패션의 창의력은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게 하는 무형의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커다란 전파력을 지니며 폭발적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조규화, 이희승, 2004: 36)

그러나 최근 패션 업계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이에 따른 소비의 위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나 가공 테크닉의 개발 및 참신한 디자인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전혀 다른 감성의 트렌드가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하는 현대 패션에서는 표현력이 풍부한 기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의상 디자인에 있어 다양한 표현기법에 대한 창조적 접근은 디자인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조형적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 특히 최근 들어 장인정신의 뛰어난 테크닉이 중시되는 오트쿠튀르 컬렉션(haute couture collection) 뿐 아니라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pr t porter collection)에서도 수공예적인 장식 패션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디테일의 표현 테크닉이 대중적 모드로 편입되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주름은 특히 표현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의상 디자인에 있어 주름은 장식적 기능 뿐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또한 선의 반복에 의한 독특한 조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고대부터 현대까지 표현방법과 형태가 다양하게 변천되면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의상 디자인에 표현된 주름은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과거 역사복식에서 봉제주름 위주의 장식주름이 대부분이었다면 현대의 패션에서는 과거의 봉제주름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주름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오랜 역사동안 내려온 봉제주름도 새롭게 응용되어 현대적 미감에 맞게 표현되는 디자인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미니멀리즘의 퇴조와 함께 수공예적 봉제기법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장식 주름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름은 특유의 조형감과 시각효과를 지니며 다양한 연출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에 있어 활용빈도가 높으면서도 단순히 부분적인 디테일로 국한되어 평가되어 왔다. 최근 들어 주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부 주름의 기법을 중심으로 한정하거나(이유경, 1994; 이희남, 1996; 이은영, 1999; 조진숙, 2004) 특정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을 뿐(곽혜영, 2000) 디자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름의 종류와 그 표현기법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표현기법을 집대성하여 살펴봄으로써 디자인 발상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복식사전 및 복식백과사전(조규화 편저, 1995; 田中千代, 1991;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98)에서 주름의 유형을 살펴본 후 그 어원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주름의 제작방법과 유형을 소개한 관련 서적(Anne Andrew, 1989; Colette Wolff, 1996; Creative Publishing International, 2002; Jessica Wrobel, 1998) 등을 참고하였다. 주름에 의한 패션 디자인 사례 연구는 최근의 패션 디자인에서 주름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S/S부터 2005년 S/S까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을 디자이너별로 소개한 'Collections' 과 소재, 컬러, 디테일, 아이템 등

카테고리에 따라 소개한 'Collections-Trends Visual Map'에 게재된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을 중심으로 하였다. 각 시즌별로 주름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디자이너와 그 작품을 살펴본 후 주름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II. 주름의 조형요소

조형은 물질에 의한 표현의 세계이며 물질 자체가 갖는 재질의 기능이나 본질은 감각형태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버트 리드(H. Read)가 형태를 만들어 내려는 의지를 조형이라 하였듯 조형사조의 구조는 이념으로서의 형(形)에 기술이나 기법을 개입시켜 물(物)을 객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迂弘, 杉山明博, 김인권 역, 1991: 11). 조형을 위한 가능성은 새로운 재료의 인식에서 시작하며, 조형학적 측면에서의 고찰과 더불어 각종 실험을 통한 재료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없이 조형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한석우, 1994: 1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면의 재질을 변형시키는 주름이 독특한 조형 세계를 연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름은 단순한 기능성의 충족을 넘어 다양한 미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수반하며 자체의 구조적 조형감을 지닌다.

1. 주름의 선

주름은 반복적인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선은 조형예술의 기본적 요소 중 하나로 길이와 넓이의 시각적 구분을 하게 해주며 사물의 형태를 형성하고 동세와 방향을 유도한다. 모든 시각 디자인에서 선은 외곽선을 나타내며, 형을 연결시키며 형의 내부에서 공간을 분할하는 기능을 지닌다. Marilyn J. Horn과 Lois M. Gurel(1992)은 선이 한 디자인에서 우세할 때, 선은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각적 방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주름의 선은 반복의 형태가 보편적이다. 반복은

강조나 통일감을 얻게 하는 중요한 원리이며 반복 자체가 선의 구조적, 장식적 사용에 이용된다. 주름의 반복에 의한 방향효과는 신체 위에서 방향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며 동시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혹은 탄력 있고 역동적인 리듬감을 연출한다. 리듬감은 곧 울동을 의미하는데, 울동은 근본적으로 '동세'와 관련된 것으로 흐르는 듯 혹은 분절적으로 표현되며, 명확하게 혹은 미묘하게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주름 선의 반복은 울동의 효과를 주는데, 그 단위가 생동적일수록 더욱 많은 관심을 끌며 더 확대되어 보이게 된다(Marian L. Davis, 1987: 210).

주름의 선은 그 넓이나 수, 길이, 모양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플리츠나 턱과 같이 직선적인 주름 선은 안정적이며 힘이 있는 느낌이나 모던한 느낌을 주며 러플이나 프릴 등 곡선적인 주름 선은 부드러운, 우아한, 여성스러운 느낌이나 탄력 있고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단면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는 아코디언 주름은 뚜렷하고 날카로운 느낌,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넓은 간격의 주름은 확실하고 단호한 느낌, 힘 있고 남성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비해 좁은 간격의 주름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느낌, 온화하고 미묘한 느낌을 준다.

2. 주름의 공간

복식에 있어 주름에 의해 제공되는 공간은 복식 내부와 외부와의 부피로, 이 공간은 다양한 기능성과 조형성을 지니며 물리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를 전달한다. 또한 복식은 인체와 함께 움직이며 삼차원의 인체에 입혀지는 조형이기 때문에 복식 디자인에 있어 공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Marian L. Davis(1987)는 공간(space)의 개념을 영역(area) 또는 범위(extent)로 보고 이를 시각 디자인의 결정적인 요소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둘러막힌 공간은 보통 '형'이라 하며, 둘러막히지 않은 공간은 단순히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분리할 수 없으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닌다. 시각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인 공간은 시각적 공간 및 형의 관계와 그들의 효과로 인해 복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

다. 또한 의복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부피로서의 공간은 기능적 디자인, 보호, 격리, 동작을 위한 여유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름은 복식 표면에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며 이러한 공간효과는 복식 속에 구조적으로, 장식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주름은 3차원의 실제 공간에 하나의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는데 인체와 주름 간에 형성되는 이 공간은 움직임에 대한 여지를 주며 새로운 양감을 표현한다.

3. 주름의 텍스처

텍스처(texture)는 곧 재질(材質)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독특한 느낌으로, '질감(質感)', 우리말의 '결', 불어의 마티에르(matière)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텍스처는 눈을 자극하는 자체의 강도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이 놓여있는 상태와 형태, 색채 등 다른 조형요소와의 관계에서 지각된다.

의상 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조형 활동에 있어 조형의 기본 요소인 텍스처를 표현하는 것은 재료와 기법에 따라 조형적 공간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송번수, 1998: 118). 뿐만 아니라 텍스처는 패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 우리의 촉각, 시각 뿐 아니라 청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복식에 있어 텍스처는 신체의 형과 크기에 시각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착시나 강조된 실체를 창출하며 표면 특성과 촉각적 특성에 있어 기능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주름은 의상디자인에 있어 구조적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독특한 텍스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플리츠, 개더, 셔링 등 다양한 주름은 표면을 재구성하고 입체감 있는 텍스처를 표현한다. 주름에 의한 텍스처는 주름을 접거나 누르거나 구기는 방식 등에 따라 그 깊이감이 달라진다.

III. 주름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주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접거나 구기거나 잡아당기거나 늘어뜨려 생긴 모든 형태의 주름을 다루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름의 유형을 주름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 크게 봉제 주름, 가공 주름, 구성 주름으로 살펴보았다.

1. 봉제 주름

봉제 주름은 봉제기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름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실과 바늘(재봉틀)을 이용한 주름의 유형이다. 봉제 주름은 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장식적인 패션의 유행과 함께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용되며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디자인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종종 흥미로운 시각 효과를 준다.

1) 턱(tucks)

턱이란 어원이 'tuken'으로 '빈틈없이 잡아당기다', '민첩하게 잡아당기다'는 의미인데 긴 것을 걷어 올리는 것'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服裝文化協會, 1976: 629-630). 패션 용어에서 턱은 옷감의 넓이 또는 길이를 줄이거나 모양을 내기 위하여 주름을 접어 박은 것으로 본다(조규화, 1995: 565). 턱은 간격이나 너비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며 패턴처럼 직물전체에 사용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뒷면에서 볼 때 턱은 솔기(seam)의 형태로 보이며, 직물 자체의 두께감을 증가시켜 직물을 안정화시킨다.

턱은 주름의 폭이나 주름간의 간격, 주름을 잡는 모양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턱이라 하는 것은 길고 직선적으로 접어 박은 주름의 형태로 가늘게 접은 핀 턱(pin tucks), 주름간의 간격이 넓은 스페이스드 턱(spaced tucks), 주름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 스티치가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턱(blind tucks), 바둑판 모양의 크로스 턱(cross tucks), 방사상의 선바스트 턱(sunburst tucks), 규칙적 간격으로 턱 장식이 있는 클러스터 턱(cluster tucks) 등이 있다. 또한 장식 바느질로 스칼럽 모양을 만든 셸 턱(shell tucks), 주름의 방향을 반대로 꺾어 장식적으로 스티치한 크로스 스티치

턱(cross-stitched tucks), 주름을 가운데서 접어 납작하게 만든 후 규칙적으로 양끝을 집어서 모양을 낸 크로스 택 턱(cross-tacked tucks) 등 독특한 모양의 턱도 있다(그림 1).

턱은 장식적이면서도 다트를 대신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어 인체의 굴곡에 맞추어 피트 되도록 하여 몸에 꼭 맞는 착용감을 부여할 수 있다. 다트가 천을 입체화하기 위해 잡은 부분을 깨매서 없애는 반면, 턱은 잡아 집는 것으로 나머지는 그냥 주름상태로 놔두는 것에 차이가 있다(田中千代, 1991: 616). 또 다트는 그 길이에 대해서 깊이의 한도가 있지만, 턱의 경우는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턱은 종종 목둘레나 허리둘레, 손목 등 신체의 오목한 부위에서 신체의 바디라인에 맞추어 불필요한 여유분을 접어 없애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턱은 플리츠와 표현형태가 비슷하나 그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턱은 정지 상태의 평면적인 구조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하지만 움직임이 있거나 구면(球面) 위에서 주름이 퍼지는 플리츠와 달리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고 움직임에도 변화가 없다(服裝文化協會, 1976: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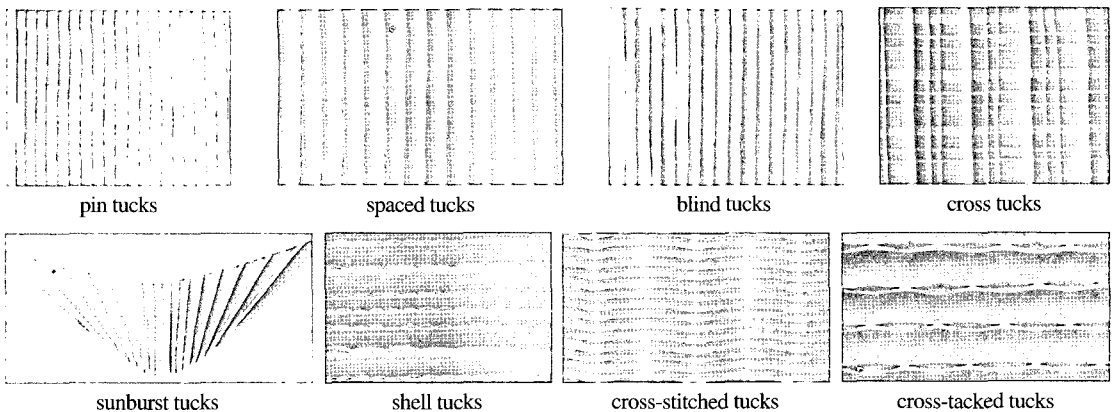
턱은 블라우스의 칼라나 가슴, 소매 등이나 재킷의 칼라장식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직물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사용되어 직물의 질감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조진숙(2004)이 턱의 조형미를 장식미와 구조미라고 지적하였듯이 턱은 입체적인 깊이감과 리드미컬한 반복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며(Helen L. Brockman, 1965: 294) 소재와 스티치, 기법과의 결합을 통해 평면적인 느낌 위에 요철을 만들어 '재질감의 변형'을 가져온다.

2) 스모킹(smocking)

스모킹은 개더에서 발전된 형태로 아주 가는 주름을 잡고 그 주름의 올라운 부분을 떠올려가며 자수실로 제본하듯이 스티치 하는 기법이다(文化出版局, 文化女子大學教科書部 [共]編, 2000: 555). 원래 유럽의 농민복인 스모크(smock)에서 유래한 스모킹은 평범한 셔츠 형 의복인 스모크의 어깨나 앞가슴 부분 등에 활동을 위해 남겨놓은 여유분에서 변화된 것으로 점차 이 여유의 개더 분량이 깔끔하고 정형화된 스티치로 바뀌었는데 이 때 사용된 자수기법을 스모킹이라 하게 되었다(Kit Pyman, 1990: 9).

스모킹에 필요한 직물의 너비는 직물의 두께나 스모킹의 크기, 스모킹시의 장력, 스티치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스모킹을 하면 폭 뿐 아니라 길이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샘플작업을 하여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모킹을 할 때 적당하고 규칙적인 장력은 필수적인



〈그림 1〉 턱의 종류: 『The Art of Manipulating Fabric(1996)』

데, 장력이 너무 느슨하면 스티치의 모양이나 주름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너무 세면 스티치가 눌러 모양이 나지 않으며 전혀 신축성이 없게 된다. 스모킹에서 자수 스티치는 장식의 역할 뿐 아니라 주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여 스티치가 없는 주름 부분은 잡아당기면 늘어나 신축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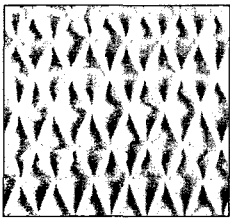
스모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먼저 규칙적으로 주름을 잡은 후 그 위에 다양한 장식 스티치로 주름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잉글리쉬 스모킹(english smocking)이 대표적이다. 잉글리쉬 스모킹은 원하는 너비의 약 3배가량의 옷감 분량이 필요하다. 옷감의 뒷면에 같은 간격으로 점 표시를 한 후 홈질을 하여 규칙적인 개더를 잡고 여기에 다양한 스티치를 한 후 마지막에 개더를 위해 잡은 홈질은 제거하면 된다. 잉글리쉬 스모킹에 자주 사용되는 자수 스티치는 허니콤(honeycomb stitch), 케이블(cable stitch), 반다이크(vandyke stitch), 페더(feather stitch), 웨이브(wave stitch), 트렐리스(trellis stitch) 등 다양하다(Anne Andrew, 1989: 14)(그림 2).

또 다른 유형은 주름을 먼저 잡지 않고 격자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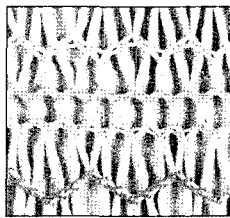
용지의 표시된 점에 따라 장식사로 스티치하면서 잡아당겨 주름을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일명 다이렉트 스모킹(direct smocking)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인 스모킹(italian smocking)과 북미식 스모킹(north american smocking)도 여기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름의 다양한 패턴이 특징적이다. 이탈리아인 스모킹은 스티치 방향을 수직, 수평으로 변화시키거나 생각하여 입체적이고 추상적인 패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격이는 다양한 패턴이 특징적이다(Colette Wolff, 1996: 138-147). 북미식 스모킹은 격자무늬 도안지에 맞춰 실을 잡아당기거나 느슨하게 두는 것을 번갈아 하며 격자, 마름모, 꽃 모양이나 복잡한 구성의 패턴을 만든다(그림 3).

3) 셔링(shir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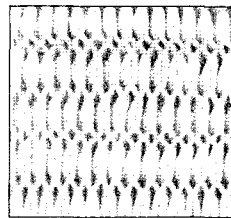
셔링은 둘이나 그 이상의 평행한 라인으로 스티치한 후 잡아당겨 장식적인 주름을 잡는 방법을 말한다. 셔링의 형태는 중세 유럽의 농민복인 던들형 스커트와 블라우스 등에 사용되던 개더가 실크의 보급에 의해 장식성이 요구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服裝文化協會, 1976,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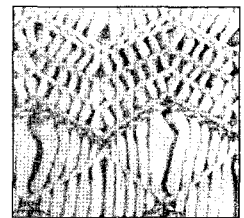
honeycomb stitch



feather st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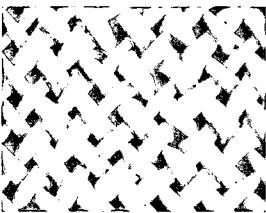


cable st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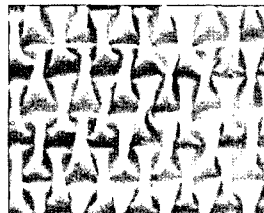


wave & trellis stitch

〈그림 2〉 다양한 스티치의 잉글리쉬 스모킹: 「Smocking」



격자형 (lattice pattern)



마름모형 (lozenge pattern)



꽃형 (flower pattern)

〈그림 3〉 북미식 스모킹: 「The Art of Manipulating Fabric」

개더에서 발전된 셔링은 가는 주름에 의한 아름다운 음영 효과가 특징적이다. 셔링은 넓은 면적을 주름으로 줄여 탄력 있게 인체에 밀착되면서 동시에 장식적이다(Patrick John Ireland, 1987: 218). 셔링은 의복 전체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분에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름이 풍부하게 잡히는 가볍고 얇은 소재가 적합하다. 블라우스의 가슴장식이나 수영복, 원피스 허리부분, 장갑의 손목 부분 등 몸에 밀착되면서도 활동이나 착용의 여유가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인다(조규화, 1995: 272).

셔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원하는 간격으로 여러 줄을 재봉틀로 박은 후 밀실을 잡아 당겨 개더를 만들어 입체적인 모양을 만드는데 이 경우 윗실은 느슨하게 해둔다. 둘째, 재봉틀의 밀실에 고무사를 사용하여 주름을 만드는 방법으로(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98: 490) 손쉽게 다양한 형태의 셔링을 잡을 수 있어 기성복에 자주 사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직물 밑에 고무 밴드를 놓고 고무 밴드를 당기면서 봉제한 셔링의 형태가 스포츠, 캐주얼웨어나 점퍼 등에 손쉽게 사용된다. 셋째, 직물 사이에 끈을 삽입한 후 직물을 밀어 올려도 셔링의 형태가 생긴다(Colette Wolff, 1996: 32). 특히 최근 패션에서 스트링을 이용한 풍부한 셔링의 형태가 많이 보인다.

4) 트리밍(trimmin) 형의 장식주름

트리밍 형의 장식주름은 주로 길고 가는 장식끈(strip)의 형태로 러플, 프릴, 플라운스, 루시 등이 있다. 트리밍형의 장식주름은 주로 다른 곳에 부착되어 사용되며 종종 여러 겹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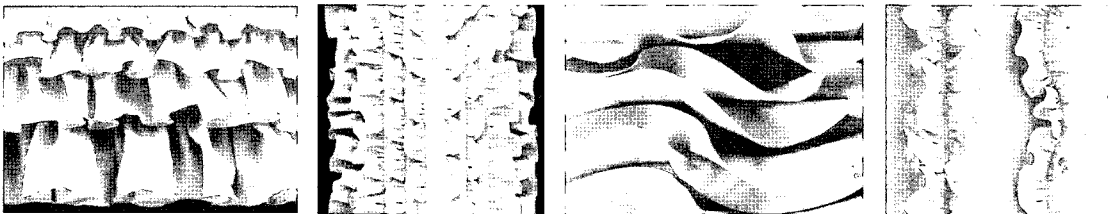
(1) 러플(ruffle)

러플은 어원이 '구기다'는 뜻의 'ruffelen'으로 '주름을 잡다, 오글오글하게 만들다'는 의미가 있다. 패션 용어로 러플은 가장자리 장식으로 사용되는 한쪽 단에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다른 쪽이 펠럭펠럭하도록 하거나 양쪽 모두 펠럭거리게 한 장식을 말한다(服裝文化協會, 1976: 490). 러플은 특유의 곡선미와 풍성함으로 인해 복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식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러플의 종류는 직선적인 직물 조각의 한 부분에 개더를 잡아 만드는 직선형 러플(straight ruffle)과 도넛 같은 원형의 형태로 재단하는 원형 러플(circular ruffle)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Sharon Lee Tate, 1984: 147). 직선형 러플은 완성 폭의 약 2-3배의 치수를 개더나 주름을 잡아 사용한다. 원형 러플은 큰 원형의 중심에서 작은 원형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재단하는데, 안쪽 선을 직선에 박으면 바깥쪽 가장자리가 물결치는 듯한 모양이 되면서 플레이어형의 주름이 나타난다.

(2) 프릴(frill)

프릴은 16세기 이후 사용된 용어로 주로 드레스나 블라우스 등에 트리밍으로 사용된 러플의 형태를 말한다. 프릴은 좁은 폭의 직물 한쪽 면에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의복의 가장자리에 붙여 하늘하늘하게 표현하는데, 주로 여성복이나 아동복의 칼라나 소매단, 밑단 등에 장식적으로 사용된다. 러플과 비슷한데, 러플보다는 폭이 좁거나 단면의 플리츠나 개더가 비교적 작은 것을 프릴이라 한다(服裝文化協會, 1976: 248).



러플(ruffle)

프릴(frill)

플라운스(flounce)

루시(ruche)

<그림 4> 트리밍 형태의 장식주름: 「The Art of Manipulating Fabric」

(3) 플라운스(flounce)

Webster사전에 의하면 플라운스는 그 어원이 '서 두르다'는 뜻의 노르웨이어 'flunsa'와 근접하며, '꽤 움직이다, 경쾌하게 움직이다'는 의미가 있다. 패션 용어에서는 직물 조각을 개더를 잡지 않고 바이어스 재단한 것을 말하며(Margo Singer, Mary Spyrou, 1989: 107) 부드럽게 물결치듯 너울거리는 주름이 특징적으로 한쪽 면이 반대쪽보다 긴 직물 조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안으로 굽은 짧은 면을 직선으로 펴서 직물에 붙일 경우 더 긴 쪽의 남은 여유분이 굽이치는 주름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Colette Wolff, 1996: 66).

(4) 루시(ruche)

루시의 어원은 벌집을 의미하는 불어의 '뤼슈(ruche)'로, 나무껍질을 의미하는 중세 라틴어 'rusca'에서 온 말이다. 패션 용어에서 루시는 트리밍으로 사용되는 플리츠나 개더 처리한 직물의 스트립(strip)을 의미하며 장식한 모습이 벌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조규화, 1995: 119).

2. 가공 주름

최근의 가공 주름은 기존의 보편적인 열처리 가공 외에도 화학 약품에 의한 가공, 습식 및 분사에 의한 가공기법 등 다양한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권은영, 2004). 그러나 이 중에서 아직 많은 경우가 예술성에 치우치거나 일상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운 급속성 소재에 이루어지거나 하여 대중의 패션 소재로 사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 주름 중에서도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름으로 한정하여 열가공에 의한 플리츠와 크링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패션에서 플리츠와 크링클은 단순한 디자인을 위한 효과적인 표면연출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1) 플리츠(pleats)

플리츠는 'plete'가 그 어원으로, 직물을 겹쳐서 접은 자리(fold)를 의미한다. 플리츠는 눌러서 접은

주름의 형태로 직선적인 주름이다. 플리츠는 주름을 잡는 방법, 주름의 모양과 간격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세밀한 나이프 플리츠(knife pleats), 박스형의 넓은 주름형인 박스 플리츠(box pleats), 주름분이 아래로 놓인 인버티드 플리츠(inverted pleats), 지그재그형의 아코디언 플리츠(accordion pleats)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합성섬유의 열가소성을 이용한 영구 주름(permanent pleats) 가공 기술로 고도로 세밀한 주름에서부터 다양한 간격과 모양의 주름까지 가능하다. 직물을 날이 있는 롤러 위를 통과시켜 가열, 제작하는 기계주름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특히 펴지기 쉬운 주름의 형태인 아코디언 플리츠는 대부분 영구주름으로 처리한다.

플리츠는 가지런히 놓은 정지 상태에서는 평면적이지만, 동작이 가해지면 다이나믹한 움직임에 의해 활동량이 커지는 특징이 있고, 유동성이 강하면서도 개더보다 뚜렷한 느낌의 장점이 있다(服裝文化協會, 1976: 630). 이처럼 플리츠는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다양한 미적 변화와 심리적 효과를 수반, 복식의 조형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마리아노 포투니(Mariano Fortuny)가 매우 좁은 간격으로 폴리팅된 실크 드레스 '델포스(Delphos)'를 발표한 이후(Joan Nunn, 1984: 206) 매리 맥파든(Mary McFadden), 잇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플리츠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처럼 플리츠는 직선적인 입체감, 규칙성, 리듬감을 보이며 유행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체의 구조적인 조형감에 의해 장식적 효과가 크며 동시에 입체적이다. 특히 최근의 플리츠는 직선적이고 규칙적인 모양 외에도 자연스러운 유연함을 주는 물결 무늬 플리츠나 불규칙한 느낌의 플리츠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2) 크링클(Crinkle)

플리츠가 열가공에 의한 규칙적이고 직선적인 주름인데 비해 크링클은 손으로 움켜 쥐었다 놓은 것처럼 불규칙한 구김형의 주름을 말한다. 크링클 가

공이란 구김을 일종의 무늬모양 같은 표현효과로 만든 것으로 이 구김이 있는 의류를 착용하는 것을 유행으로 여겨 받아들여진 가공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구김을 만들어주는 가공이라 할 수 있다. 구김도 큰 것에서 작은 것, 주름 같은 모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열가소성이 있는 합섬을 요철이 있는 롤러로 구김을 만들어 이를 고온에서 고정시켜 풀어지지 않도록 가공하거나(공석봉, 소황옥, 2004: 303) 자루 속에 구겨 넣은 상태로 물리적 구김을 가한 후 축소, 감량, 염색, 가공 처리할 수도 있다(이희남, 1996).

크링클은 불규칙하게 주름지고 풀어진 듯한 형태나 혹은 심하게 구겨진 듯한 형태 등 인위적인 반듯함이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 때문에 1990년대 초반 에콜로지 패션의 유행과 최근의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셔츠나 블라우스, 스카프 등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현대패션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3. 구성주름

구성주름은 의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주름으로 드레이프(drape)가 대표적이다. 드레이프는 조형의 수단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의 형태로, 원래 의미는 '천을 짜는 것'이었는데, '느슨하게 주름이 들어있는 천으로 덮다', '천을 우아하게 주름이 잡히도록 늘어뜨려 놓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의복을 디자인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田中千代, 1991: 734). 드레이프의 아름다움을 살린 옷은 고대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 등이 있으며 민속복 중에서는 인도의 사리를 들 수가 있다.

드레이프는 신체에 두르거나 걸치면서 생기는 주름으로 움직임에 내포하기 때문에 자연적이며 유동적이다. 드레이프는 자유로운 곡선형을 형성하여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곡선의 부드러운 주름은 체형에 따라서 울동미를 표현하고 소재의 두께감에 따라 얇고 부드러운 소재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두꺼운 소재는 활기차고

강한 이미지를 준다.

20세기 초 마들렌느 비오네(Madeleine Vionnet)와 마담 그레(Madame Grès) 등이 드레이프에 의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 이래, 드레이프는 최근의 패션에서도 새로운 컷팅 기법과 제작기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미를 살리면서 현대적 미감에 맞는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세련된 비대칭의 디자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IV. 주름에 의한 패션 디자인 분석

2000년대 이후의 패션 디자인은 1990년대 전반을 휩쓴 미니멀리즘의 차갑고 단순한 스타일을 대신하여 인간적 감성이 더해진 수공예적 디테일의 패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디테일의 요소가 개성적 표현과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안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주름은 종류도 다양하고 표현력이 풍부하여 최근의 패션 디자인에서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00년 S/S부터 2005년 S/S까지 주름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각 시즌별로 유의미한 큰 차이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주름을 해석,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시즌별로 디자인 전개에 있어 주름을 중요한 테크닉으로 활용한 디자이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주름을 주된 테크닉으로 사용한 경우 턱이나 플리츠 혹은 셔링, 드레이프, 프릴 등 분위기가 비슷한 주름을 이용해 여러 작품으로 디자인을 변형시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름에 의한 디자인은 그 빈도가 매우 높아 거의 모든 시즌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특히 가장 광범위하게 자주 나타난 것이 프릴, 러플 등의 트리밍형 장식 주름인데, 알베르타 페레티(Alberta Ferretti),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외 다수의 디자이너가 프릴, 러플, 플라운스 등으로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한편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살라얀

〈표 1〉 각 시즌별 주름 디자인을 선보인 디자이너

시즌	주름 유형	봉제주름				가공주름		구성주름
		턱	스모킹	셔링	트리밍형 장식주름 (프릴, 러플 외)	폴리츠	크링클	드레이프
00 S/S	Prada, GFF, Maurizio Galante, Giorgio Armani	Koji Tatsuno, Masaki Matsushima	Ghost, Daryl K, Koji Tatsuno, DKNY	Alberta Ferretti, Martin Sitbon, Moschino, Hussein Chalayan, Prada, Anna Molinari, John Bartlet, Junya Watanabe Comme des Garçons, Balmain	John Galliano, Masaki Matsushima	Koji Tatsuno	Erreuno, Christian Lacroix, Jean Paul Gaultier	
00-01 A/W	Givenchy, Martin Sitbon, Chanel, Anna Molinari		Valentino	Martin Sitbon, Mmi, Nina Ricci, Enrico Coveri, Anna Sui, Cristian Dior, Hussein Chalayan, Junya Watanabe Comme des Garçons, Marc Jacobs	Keita Maruyama, Chanel, Givenchy, Oscar de la Renta	Yoshiki Hishinuma, Mariella Burani, Sportmax	Genny, Valentino	
01 S/S	Fendi		Antonio Berardi, Daryl K, Callaghan	Chiyuki	Ungaro, Prada, Victor Alfaro, Ruffo Research		Versus, Gianni Versace, Vivienne Westwood, Clements Ribeiro	
01-02 A/W	BCBG Maxazria, Pim:Liko, Tristan Webber, Krizia Top	Lawrence Steele, I.S. Sunao Kuwahara	Alberta Ferretti, Dona Karan, Alessandro Dellacqua, Genny	Genny, Giorgio Armani, Antonio Berardi, Keiko Suzuki Anna Molinari, Miu Miu, D&G	Nicole Farhi, Daryl K, Alberta Ferretti	Chiyuki, Issey Miyake	Salvatore Ferragamo, Clements Ribeiro	
02 S/S	Marni, Fendi, Alexander McQueen, Tristan Webber, Alberta Ferretti	Guy Laroche, Paco Rabanne, Alberta Ferretti	Preen, Alberta Ferretti, Byblos, Junko Shimada, Guerriero, Laura Biagiotti	Alexander McQueen, Emporio Armani, Chloé, Valentino, Marc Jacobs, Moschino Cheap & Chic 외	Alexander McQueen, Fendi, Daniel Herman	GFF, Cividini, Martin Sitbon, Krizia Top, Christian Lacroix, Philasophy di Alberta Ferretti 외	Giorgio Armani, Krizia Top, Gucci, Vivienne Westwood Gold Label	
02-03 A/W	Alexander McQueen, Issey Miyake, Jean Paul Gaultier	Haider Ackermann	Guerriero, Mila Schön, Alexander McQueen, Yoshiki Hishinuma, Betty Jackson 외	Alexander McQueen, Moschino, Anna Sui, Marc Jacobs, Alberta Ferretti	Trussardi, Junko Shimada, Clements Ribeiro, John Galliano, Haider Ackermann	Nicola del Verme	Lanvin	

<표 1> 계속

시즌	주름유형	봉제주름				가공주름		구성주름
		턱	스모킹	셔링	트리밍형 장식주름 (프릴, 리플 외)	플리츠	크링클	드레이프
03 S/S	Miguel Adrover, Louis Vuitton, Moschino Cheap & Chic		Dice Kayak, Coccapani, D&G, Hussein Chalayan	Alexander Herhcovitch, Louis Vuitton, Maska, Blumarin, Emilio Pucci, John Galliano	Kenzo, Ruffo Research, Junko Shimada, Zac Posen, TSE, Pringle, Chloé, Hussein Chalayan,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	Ann Demeuleme ester, Lagerfeld Gallery, Cerruti	Antonia Marras, Martin Margiela, Maxmara, Balmain	
03-04 A/W	Alexander McQueen, Jil Sander, Alberta Ferretti, Sophia Kokosalaki		Sportmax, Emanuel Ungaro, Antonio Berardi, Jean Paul Gaultier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 Balmain, Balenciaga, Chloé, Versace, John Galliano, Christian Dior, Ralph Lauren	Alexander McQueen, Carolina Herrera, Pringle, Lanvin, Anna Molinari, Guy Laroche		Russell Sage, Amaya Arzuaga, Hussein Chalayan, Rick Owens	
04 S/S	Gucci, Lagerfeld Gallery		Coccapani, Gucci, Cacharel, Hamish Morrow	Hussein Chalayan, Marc Jacobs, Versace, Miu Miu, AF Vandervorst, Alberta Ferretti, Coccapani, Jean Paul Gaultier	AF Vandervorst, D&G, Byblos, Grès by Koji Tatsuno, Prada, Louis Vuitton		Rick Owens, Martin Sitbon, Yves Saint Lauren Rive Gauche, Ines Valentinitzsch	
04-05 A/W	Cucci		Anna Molinari	Alberta Ferretti, Maska, Martin Sitbon, Alexandre Herhcovitch, Moschino, D&G, Marc Jacobs, Burberry Prorsum	D&G, Jil Sander, DKNY, Boudicca, Giles Rosier		Alexander McQueen, D&G, Bora Aksu, Dries Van Noten, Hussein Chalayan	
05 S/S	Jil Sander, Celine, Prada, Yves Saint Lauren, Rive Gauche, Bottega Veneta		D&G, Emma Cook, Lagerfeld Gallery, Sophia Kokosalaki	Jil Sander, Oscar de la Renta, Marni, Chloé, Zac Posen, Marc Jacobs, Blugirl	Jean Paul Gaultier, Alexander McQueen, 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 As Four, Lagerfeld Gallery, Lanvin	Fendi, Maurizio Pecoraro, Undercover Burberry Prosum	Balenciaga, Emma Cook, Trend les Copains	

(Hussein Chalayan),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Comme des Garçons) 등의 디자이너는 프릴이나 리플 등을 수십 겹으로 겹치거나 크기를 과장하는 등 하여 다소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트리밍형 장식주름은 디자이너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가능한 주름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턱은 펜디(Fendi), 프라다(Prada), 샤넬(Chanel) 외 많은 디자이너들이 선보였는데 스커트나 블라우

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의외의 부분에 사용하여 시선을 끄는 강조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찌(04 S/S), 질 샌더(05 S/S) 등은 크로스 스티치 턱과 같은 장식력으로 표면의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도 선보였다. 셔링은 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드레이프와 함께 비대칭적으로 표현되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한편 스모킹은 가장 빈도가 낮은 주름의 유형으로 전통적인 형태로 에스닉한 이미지의 디자인에 사용되거나 전통적 형태를 변화시켜 입체감을 살린 형태도 선보였다(그림 5).

플리츠는 준코 시마다(Junko Shimada),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잇세이 미야케의 나오키 타키자와(Issey Miyake by Naoki Takizawa) 외 다수의 디자이너가 넓은 간격의 플리츠부터 세밀하고 섬세한 플리츠까지 다양한 간격, 다양한 소재에 사용하였고 부분적인 디테일로 활용하거나 드레이프시켜 새로운 형태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반면 크링클은 같은 가공 주름에 속하는 플리츠에 비해 그 빈도가 낮았지만 주로 단품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텍스처의 소재에 사용되었고 특히 02, 05 S/S 시즌 많이 나타났다.

드레이프는 시폰이나 저지 등 유연한 소재로 부드러운 선의 효과를 살린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마틴 싯봉(Martin Sitbon) 등은 드레이프가 흔히 사용되는 드레스 외에도 원피스나 블라우스 등에 구조적인 컷팅선과 함께 비대칭적으로 디자인하여 현대적인 미감을 표현하였다(그림 6).

주름에 의한 디자인을 분석, 그 특징을 통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의 강조점 역할

주름은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디자인의 강조점 역할을 한다. 주름에 의한 디자인의 강조는 주름이 사용된 부위나 사용된 주름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름이 칼라나 가슴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시선을 얼굴로 모아 얼굴과 목선을 강조하며 동

시에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밑단 부분에 사용되면 전체적인 라인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여 여성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프릴이나 러플 등 트리밍형 장식주름은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디자인의 강조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턱이나 셔링, 스모킹 등도 독특한 표면효과를 내면서 시선을 모으는 포인트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의 패션디자인에서는 주름의 응용 폭이 확대되어 더욱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에서는 04/05 A/W 시즌에 가슴 부분을 턱으로 장식한 원피스를 선보였는데 스커트의 일부분을 같은 턱 기법으로 부분 장식하여 시선을 모으는 흥미요소로 사용하였다(그림 7). 장 루이 쉐레(Jean Louis Scherrer)는 04/05 A/W에 심플한 스커트의 밑단 부분을 아코디언 플리츠로 둘러가며 부채와 같은 모양으로 장식하였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직의 아코디언 플리츠의 방향을 벗어난 부드러운 곡선형의 장식이 새로운 시각효과를 준다(그림 8).

2. 기법과 소재의 혼용 및 변용

주름은 소재의 유연성이나 두께 등 재질감에 따라 같은 기법이라도 실루엣이나 스타일이 달라진다. 소재의 유연성은 디자인에 있어 턱, 플리츠 등으로 인체의 곡선에 맞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 또는 개더, 플레어 등으로 인체에서 떨어지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프릴이나 러플, 스모킹 등에는 가볍고 유연한 소재가, 턱이나 플리츠 등에는 보다 뽀뽀한 재질감의 소재가 일반적이다. 또한 광택이 있는 소재는 빛을 반사하는 특성으로 인해 표면장식에 의한 음영의 효과가 강조되어 나타나며 특히 사틴, 오간자 등 은은한 광택이 있는 소재에서는 관능적인 효과를 준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서는 기법과 소재의 적용에 있어 이러한 일반론을 뛰어넘어 보다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하는 다양한 시도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의외의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



〈그림 5〉 스모킹의 입체적 표현
(Haider Ackermann
02/03 A/W)
「Collections」



〈그림 6〉 현대적 미감의 드레
이프 표현(Martin
Sitbon 04 S/S)
「Collections」



〈그림 7〉 턱에 의한 디자인
강조(Christian
Dior 04/05 A/W)
「Collections」



〈그림 8〉 플리츠에 의한 디자
인 강조(Jean Louis
Scherrer 04/05
A/W)「Collections」

로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에 사용되는 서링이나 러플, 턱, 스모킹 등이 두껍고 뾰뻗한 재질의 가죽이나 벨벳 등에서는 풍부한 음영 표현으로 입체감이 강조되며 보다 드라마틱한 표현이 가능하다(그림 9).

한편, 시폰이나 오간자, 레이스 등 가볍고 비치는 소재는 빛을 통과시키는 재료의 특성으로 배후에 있는 물체를 그대로 드러내며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어 섬세한 드레이프나 플리츠 주름, 언발란스한 헴 라인, 흐르는 듯한 스타일 등에 자주 사용된다. 이렇게 유연한 소재의 경우, 그 특성상 직선적이고 정형화된 턱 기법이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오히려 색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03 S/S에 알베르타 페레티(Alberta Ferretti)가 선보인 시폰 블라우스는 가슴과 소매통 부분에 직선적인 턱이 장식되었는데 시폰의 비치는 특성으로 인해 턱으로 장식된 부분이 겹쳐지면서 스트라이프 패턴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그림 10).

주름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현대 패션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름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표현되기도 한다. 플리츠와 턱, 스모킹과 서링 등 표현 양상이 비슷한 기법들은 함께 혼합될 때 전체적인 인상은 비슷하면서 좀 더 변화된 표현이 가능하다. 02/03 A/W에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이 발표한 원피스선 가슴부분의 규칙적인 허니콤 스모킹과 스커트 부분의 아코디언 플리츠가 길게 연결된 하이 웨이스트의 스타일로

주름 특유의 리드미컬한 음영효과가 나타나면서 각 기법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표현 영역이 풍부한 모습이다(그림 11). 04 S/S 그레(Grès)의 코지 타츠노(Koji Tatsuno)는 직선적이고 깔끔한 느낌의 핀턱과 부드러운 드레이프 조각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서로 다른 느낌의 주름장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느낌을 준다(그림 12).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이 지닌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기존의 기법을 변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법의 변용은 일상의 익숙한 재료와 기법에 신선함과 즐거움을 배가 시키며 디자인의 중요한 흥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주름을 여러 겹으로 겹치는 오버랩(overlap)은 주름의 기법을 변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재질이나 컬러의 소재를 이용해 오버랩 하면 다채로운 색채 효과와 함께 새로운 조형감을 주며 겹치는 정도에 따라 풍성한 볼륨감을 표현할 수 있다(그림 13).

3. 입체적 표면효과와 연출

의상 전체에 주름이 사용된 경우 주름은 그 자체가 디자인에 있어 흥미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표면을 재구성하게 된다. 최근 들어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고 예술적 표현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새로운 표면과 그 개발에 관심을 갖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름이 주는 표면감과



〈그림 9〉 입체감이 강조된 가축소재의 턱
(I. E. Uniform 02/03 A/W)
「Trends Visual Map



〈그림 10〉 시폰 소재 턱에 의한 스트라이프 효과
(Alberta Ferretti 03 S/S)「Collections」



〈그림 11〉 스모킹과 플리츠의 조합 (Haider Ackermann 02/03 A/W)「Collections」



〈그림 12〉 핀턱과 드레이프의 조합
(Grès04 S/S)「Collections」

촉각적인 감각은 일상의 평범함과 지루함을 탈피하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작용한다.

주름에 의해 표면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은 심플한 디자인을 위한 효과적인 소재 연출 방법으로 가공에 의한 플리츠와 크링클 등이 대표적이다. 소재의 주름 가공을 통한 입체적 표면효과는 그 자체만으로 시각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턱도 장식적 표면효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주름의 방향을 반대로 꺾어 박은 크로스 스티치 턱이나 주름의 가운데를 접어 납작하게 만든 후 규칙적으로 양끝을 집어서 모양을 낸 크로스 턱 등은 주름 분량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표면효과가

뛰어나다. 05 S/S 시즌에 질 샌더(Jil Sander)는 줄무늬 패턴의 소재에 주름의 방향을 반대로 꺾어 박은 크로스 스티치 턱을 처리하여 표면에 물결무늬와 같은 입체효과를 주었다(그림 14). 특히 턱의 방향이 반대로 꺾이면서 입체적으로 서 있게 된 분량과 그에 따른 그림자 효과가 줄무늬와 더불어 강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또한 주로 트리밍 장식으로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프릴이나 폭이 좁은 루시 장식 등도 표면 전체에 부착할 경우 마치 새로운 소재처럼 보일 수 있다. 01/02 A/W에 케이코 스즈키(Keiko Suzuki)가 선보인 루시 장식은 상의 전체에 조밀하게 부착되어 리드미컬하고 탄력 있게 입체적 표면을 연출하였다(그림 15).



〈그림 13〉 러플의 오버랩 효과
(Alexandre Herchovitch 04/05 A/W)「Collections」



〈그림 14〉 크로스 스티치 턱의 입체적 표면효과 (Jil Sander 05 S/S)「Collections」



〈그림 15〉 루시의 부착에 의한 입체적 표면효과 (Keiko Suzuki 01/02 A/W)「Collections」

4. 독특한 조형미의 창출

주름에서 겹쳐지는 입체적인 면과 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은 빛의 각도와 다양한 명암의 차로 인해 직물 표면에 공간감과 깊이감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수반한다(이유경, 1994). 이러한 공간감과 깊이감은 독특한 조형미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주름의 크기가 크거나 여러 겹으로 겹쳐서 표현될 때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러플에서 보이는 파상의 울동미는 활기찬 생동감을 주며 외관상 및 실제상의 움직임에 제공한다. 특히 러플의 단 처리를 대비되는 컬러의 테이프를 배색 처리 하면 러플이나 프릴이 주는 곡선의 라인미가 살아나 더욱 조형미가 강조된다. 또한 러플의 조형미를 강조하기 위해 단부분에 심지를 대거나 와이어를 넣으면 더욱 형태감이 강조되며 그 정도에 따라 인위적이고 과장된 표현도 가능하다.

러플이 곡선적인 형태의 조형미를 보인다면, 플리츠나 턱 등은 규칙적이고 직선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특히 아코디언 플리츠는 단면이 입체감 있는 지그재그형으로 플리츠 중에 입체감이 두드러지고 시각효과가 뛰어나 자주 사용된다. 01 S/S에 아츠로 타야마(Atsuro Tayama)가 발표한 원피스에는 아코디언 플리츠를 여러 겹으로 오버랩 시키면서 장식하였는데 움직임에 따라 주름 분량이 벌어지면서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그림 16).

5. 다양한 이미지의 전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주름은 그 유형이 다양한 만큼 표현영역이 풍부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전개가 가능하다. 주름은 소재나 컬러의 선택, 다른 기법과의 혼합, 코디네이트 방법 등을 통해 한 가지 이미지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감성의 이미지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주름은 다양한 감성의 트렌드가 공존하는 멀티 트렌드(multi-trends)가 특징적인 현대 패션에 있어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나고 있으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름의 표현이 곡선적인 형태인 프릴,

러플 등의 주름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그림 17). 프릴이나 러플 등의 트리밍형의 주름 장식은 네크라인이나 헵 라인 등에 한 두 겹으로 장식되면 움직임에 따라 가볍게 살랑거리며 여성스럽고 로맨틱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며, 여러 겹으로 레어드 되거나 볼륨감 있게 표현되면 더욱 풍부한 음영효과를 내면서 화려하면서 풍성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패션에서는 여성적 이미지의 전형인 트리밍형의 주름 장식이 캐주얼한 이미지에 사용되기도 한다. 03 S/S 알렉산드르 허치코비치(Alexandre Herchcovitch)는 비비드한 컬러로 배색 처리한 프릴을 전체적으로 장식한 스커트를 스포티한 후드 티셔츠와 매치시켰는데 컬러 전개나 코디네이트 감각을 통해 프릴 장식에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가미한 모습이다(그림 18).

한편 직선적인 주름의 형태로 표현되는 플리츠나 턱 등은 리듬감 있는 선을 형성하면서 의복 구조상에 필수적인 디테일처럼, 혹은 소재처럼 사용되어 모던한 이미지로 자주 사용된다. 02/03 A/W 앤 클라인(Anne Klein)의 투피스는 그레이 컬러의 재킷과 스커트에 규칙적인 수직의 핀트 장식이 소재처럼 구성되어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19).

또한 주름을 과장된 사이즈로 표현하는 경우는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일상적



〈그림 16〉 움직임에 따른 플리츠의 조형미 (Atsuro Tayama 01 S/S) 「Collections」



〈그림 17〉 로맨틱한 이미지의 프릴 (Marc Jacobs 04 S/S) 「Trends Visual Map」



〈그림 18〉 스포티한 이미지의 프릴
(Alexandre
Herchovitch 03
S/S) 「Collections」



〈그림 19〉 모던한 이미지의 턱
(Anne Klein
02/03 A/W)
「Trends Visual
Map」

크기에서 벗어나게 확대, 혹은 축소하거나 과장된 크기의 주름을 통해 신체를 과장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과장된 형태나 과장된 크기의 주름은 인체와 무관한 개방된 공간으로의 확장을 통해 하나의 열린 공간을 구성한다.

V. 결론

의상 디자인에 있어 표현기법의 개발은 디자이너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그 표현영역을 풍부하게 해 줌으로써 디자인의 폭을 한층 더 넓어지게 한다. 의상 디자인에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기법 중 주름은 옷감의 넓은 폭을 줄여 활동성을 높이는 실용적 기능을 지니면서 동시에 장식적, 조형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복식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접어서 바느질로 고정시키거나 잡아당겨 오그리는 봉제 주름은 세기말부터 최근까지의 장식적인 패션 경향과 함께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디자인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종종 흥미로운 시각 효과를 준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영구적인 가공 주름은 심플한 형태가 특징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을 위한 효과적인 표면연출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는 구성 주름도 고급기술의 재단법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의해 현대적 미감에 맞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주름은 고풍스럽고 여성스러운 주름에서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주름까지 다양한 유형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주름 디자인은 첫째, 디자인의 부분장식을 통한 디자인의 강조점 역할을 하며 둘째, 기법과 소재가 혼합 및 변용되어 현대적 미감에 맞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입체적 표면효과를 연출하며, 넷째, 독특한 조형미를 창출하여 강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주름 디자인은 멀티 트렌드의 시대감에 맞게 다양한 이미지로 전개되는 추세이다.

이상과 같이 주름은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유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는 손쉽고 응용 가능한 기법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디자이너들은 주름을 독특한 소재감각과 조화시켜 새롭게 표현하거나 새로운 가공기법을 통해 색다른 형태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멀티 트렌드(multi-trends)가 특징적인 현대패션에 있어 주름은 특유의 조형감과 함께 다양한 감성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계속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주름을 패션 디자인의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살펴본 본 연구가 기존에 단순한 디테일로 평가된 주름에 대한 재해석과 다른 디자인 기법, 소재와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발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공석봉, 소황옥(2004). 패션소재론. 서울: 경춘사.
 광혜영(2000). 의상디자인의 주름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송번수(1998).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십 흥, 삼산명박, 김민권 역(1991). 조형형태론. 서울: 미진사.
 이유경(1994).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 연구: 플리츠와 러플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1999). 복식에 표현된 드래퍼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1), 52-67.
- 이희남(1996). 현대패션에 표현된 크랑클(Crinkle) 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 30, 167-181.
- 조규화 편저(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 조진숙(2004). 현대의상에 표현된 Tuck Design 연구. *복식문화연구*, 12(1), 12-27.
- 한석우(1994). *입체조형-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1992). *의복: 제 2의 피부*. 서울: 까치.
- 文化出版局, 文化女子大學教科書部 [共]編(2000). *ファッション辭典 - Fashion Dictionary*. 東京: 文化出版局.
- 田中千代(1991). *新田中千代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 服裝文化協會(1976). *服裝大百科事典-上卷, 下卷*. 東京: 文化出版局.
- Andrew, Anne (1989). *Smocking*. London: Merehurst.
- Brockman, Helen L. (1965).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John Wiley & Sons. Inc.
-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Second Edition*. New York: Fairchild Books.
- Davis, Marian L. (1987). *Visual Design in Dr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Ireland, Patrick John (1987). *Encyclopedia of Fashion Details*. London: Prentice-Hall, Inc.
- Nunn, Joan (1984). *Fashion in Costume 1200-1980*. New York: Schocken Books.
- Pyman, Kit (1990). *Every Kind of Smocking*. Spain: Search Press Ltd.
- Singer, Margo & Spyrou, Mary (1989). *Textile Arts-Multicultural Traditions*. London: A&C Black.
- Tate, Sharon Lee (1984). *Inside Fashion Design - 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 Wolff, Colette (1996). *The Art of Manipulating Fabric*. Iowa, Wisconsin: Krause Publications
- Collections - Trends Visual Map*. Tokyo: Gap Japan (2000 S/S~2005 S/S).
- Collections*. Tokyo: Gap Japan (2000 S/S~2005 S/S). <http://www.m-w.com>

(2005년 2월 4일 접수, 2005년 4월 12일 채택)